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가족사진: 로고스호프 대림절 첫번째 주일에 아시아 선교사들이 예배를 인도하며

안녕하세요, 로고스호프에서 신선교사 가족입니다.

10월 중순 경부터 시작된 한국 선교사님들의 방문은 11월 말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편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정 선교사님들께서 다녀가신 뒤 11월 14일에 한국 오엠을 통해 두분의 장기 선교사님 **동아시아 지역 멤버 케어 담당 강리아 선교사님, 한국오엠 류정숙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셔서 로고스호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아시아 지역의 몇 명 선교사들의 디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브리핑 **Debriefing**은 그동안의 자신과 사역을 돌아보며 어려운 문제나 의미 있었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와 조언을 얻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짧은 시간 많은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함께 교제의 시간도 열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멤버케어 차 방문하신 두 선교사님과 함께



포트노비 항에 입항중인 로고스호프



배에 초대한 아제르바이잔 여인과 함께

몬테네그로 포트노비 항구 근처에서 도은혜 선교사가 아이들과 놀이터 갔을 때 일입니다. 어느 히잡을 쓴 여인도 선교사를 계속 응시하길래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 X 여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두 아이의 엄마였고, 남편이 이곳 항구 근처에 있는 리조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X 여인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며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큰 호감을 가졌습니다. 도 선교사는 예전 J국에서 만났던 무슬림들을 생각하며 그때처럼 그 X 여인에게 다가갔고 배에 가족을 초대하여 서점과 배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집으로 초대를 받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이틀간의 만남이었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 X 여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혼자서 집에있으며 외로움과 지루함을 한국 드라마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무슬림 여성의 특성상 밖에 다니기가 힘들고, 같은 종교를 가진 같은 국적의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에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X 여인이 외로움과 지루함을 종교적으로 접근하여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11월 21일 몬테네그로 포토노비를 떠나 키프로스 리마솔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5일간의 긴 항해였는데 파도가 많이 심해 3일간 저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 멀미로 고생을 하다보니 바울과 요나 그리고 파도를 만나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3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만난 무지개



키프로스 현지 학교를 방문한 신주안 선교사



로고스호프를 방문한 키프로스 사람들

자연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몸도 마음도 작아졌던 시간이었습니다. 3일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4일째부터는 파도가 잔잔해져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에 도착하기 전날에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새로운 곳에서 다시 기쁘게 사역할 힘을 주셨습니다.

키프로스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성경의 구브로 섬입니다(행 13장). 키프로스에서 로고스호프는 여느 때처럼 서점 공식 개장식 **Official Opening**을 열어 현지 취재 기자들과 지자체장들을 초대하여 선교선이 가진 비전을 현지에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상 이벤트로는 ‘세계를 만나다’ **Meet the World**, ‘가장 위대한 보물’ **Greatest Treasure** 등의 문화 공연 행사들을 열었고 학교들의 선상 견학 프로그램으로 인신매매 경각심, 학교 폭력, 문화의 다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 되었으며, 여성들을 위한 뷰티 사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에서 육상으로 많은 팀들이 지역 사회로 나가 학교, 복지관, 난민센터, 축구, 농구 스포츠 사역 등 여러 방문 사역들 했습니다.

도은혜 선교사는 한 난민센터에 가서 돕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키프로스에는 정말 많은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그리고 요즘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을 돕기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세계에는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며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사랑 선교사는 선상에서 현지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에 아직 주님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종족들과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며 현지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고스호프의 특성상 각 나라를 다니며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과 교제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역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그 나라의 상황들과 기도제목들을 알게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60개국 이 넘는 다양한 곳에서 온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각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기도해주세요

1. 몬테네그로에서 만난 X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도록
2. 키프로스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3. 중동 지역으로 정해진 앞으로의 항로와 사역을 위해서
4. 신사랑&도은혜, 주안, 이안 선교사 가정이 은혜 안에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레바논, 베이루트 12월 15일 ~ 1월 3일

이집트, 포트사이드 1월 4일 ~ 1월 23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